

## 중세 연대기와 프랑스 민족 정체성 - 세속어산문 역사서술의 성장 -

스즈키 미치야(鈴木道也) (토요[동양] 대학)

### 목 차

서론	2. 『위 튀르팽 연대기』의 번역
(1) 13세기 프랑스	(1) 언어사용에서의 이행
(2) 사회변동과 역사서술	(2) 『위 튀르팽 연대기』의 번역
1. 중세 프랑스어 사용권	3. 세속어 역사의 확산
(1) 기원	(1) 과거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
(2) “고 프랑스어들”	(2) 세속어 연대기와 민족 정체성
(3) 운문과 산문	결론

본 글은 12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봉건 귀족들의 역사서술 전략에 의한 세속어 산문 역사서술의 등장과 봉건귀족들의 이데올로기적 전략, 그리고 이들에 맞서 13세기 초(필리프 2세 치세)에 시작된 왕권의 역사서술의 등장에 대해 개괄하고 있다. 글의 전반적인 초점은 세속어 산문 역사서술의 등장과 전개에 맞춰져 있지만 그 과정상에서 봉건귀족의 이데올로기적 전략에서 시작하여 왕권의 전략으로 전도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필자는 13세기 전반기에 왕권에 의해 추동된 세속어 산문 역사서술은 나아가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어떻게 세속어 산문으로 쓰여진 역사가 민족 정체성의 근간을 형성했는지를 13세기 초를 전후로한 정치·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 1. 중세 프랑스어 사용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필자는 프랑스어와 프랑스어 사용지역의 다양성을 지적한다. 먼저 13세기 이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 범위는 매우 폭넓었다. 크게 오일어와 오크어로 구분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의 프랑스어는 북쪽으로는 브리타니아부터 남쪽으로는 북부 이탈리아까지, 서쪽으로는 피레네 지역부터 동쪽으로는 라인강변까지 확산되어 있었다. 물론 초기의 ‘고불어’ 또한 하나의 단일한 언어가 아니어서 각 지역마다 다양한 지역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복수의 고불어들(Old Frenches)’이 있었으며 이 지역어들은 당시 각 지방문화의 중심지들인 봉건영주들의 궁정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훈시(chanson de geste)와 문학작품들을 통해 발전해 나갔다. 덧붙여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당시의 대부분의 세속어 문학작품이 구어와 친숙한 운문으로 기록되었지만 12세기 말부터 점차적 산문의 성장과 함께 무훈시가 아닌 연대기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2. 『위 튀르팽 연대기』의 번역

필자는 이러한 이행(shift)의 대표적인 사례로 『위 튀르팽 연대기』를 제시한다. 이미 미국의

역사학자 개브리엘 슈피겔(Gabrielle Spiegel)의 연구로 유명한 이와 같은 12세기 말의 산문 연대기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점차 입지가 좁아져 가고 있던 북불 봉건대제후들의 자기 정당화 전략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왕권의 강화와 화폐경제의 발전이라는 이중의 물결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과 사회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조상들의 과거에 대한 역사서술을 시도하였고 이는 세속어산문의 형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산문은 운문에 비해 역사적 사실에 진실의 가치를 부여하는 데 보다 적합한 언어로 여겨졌고 이러한 언어형식적 요소들은 봉건귀족들의 이데올로기를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적합한 매체(medium)으로 채택되었다.

### 3. 세속어 역사의 확산

세속어산문에 의한 '진실된' 역사서술의 전략은 곧 13세기 초 필리프 2세의 궁정으로 유입되어 왕조사 서술을 위해서도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1214년 부빈전투 이후 카페왕조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13세기 내내 진행되었고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은 바로 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생드니 수도사들이었다. 카페왕조의 입장에서 왕국의 역사를 기술하고 봉건귀족의 정당성을 논박하는 왕권의 역사서술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역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완결되고 종료된 사건들만의 제시가 아니라 당대까지 지속되고 있던 왕조와 함께 계속 진행되어 가는 미완과 미결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제시된다. 또한 역사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으로 소환한다. 산문이라는 문어형식은 또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화자(역사가)의 목소리를 후퇴시키며 여러 일화들을 전체적인 맥락에 맞게 조직화하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해서 운문의 서사시와 달리 산문 연대기는 객관성과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진리가를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담보하고자 한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작업들을 바탕으로 14세기 『프랑스 대연대기』의 원천이 되는 13세기의 후반의 작품들이 집필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다시 프랑스 민족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형성하였다고 결론을 맺는다.

본 글은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세속어와 산문이라는 언어의 형식적 측면들이 어떻게 역사서술의 언어로 채용되었으며 나아가 정치세력들의 정당화 논리를 뒷받침해주었는지, 나아가 왕조사를 중심으로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1. 개괄적인 글이라는 성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3세기 후반 왕권에 의한 역사서술과 민족형성의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사료)들과 함께 제시되어야 보다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이라는 용어사용이 제목과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오지만 전반적인 글의 흐름에서 비약으로 보인다.
2. 세속어산문 역사서술 전략과 관련하여 봉건귀족에서 카페왕조로의 이행은 보다 많은 보충 설명들을 요구한다. 카페왕조가 물론 봉건귀족들에 대한 반박으로서 동일한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13세기 카페왕조의 왕들이 가장 사용한 역사서술의 언어는 아무래도 라틴어였다. 물론 필자는 양자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후에 강조할 민족형성의 관점에서 라틴어산문에 의한 역사서술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